

계열별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어문학계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성찰

주 경 복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요즘 대학에서 겪는 가장 큰 진통은 학
 제 개편의 문제이다. 벌써 많은 학교
 가 선도적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기 시작했
 고, 나머지 학교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육주체들이 느끼는 심정은 복잡미묘하다.
 한편으로 5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구태
 의연한 제도를 답습해 오다가 이제서야 어
 떤 뜻에서건 변화의 몸부림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감추지 못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
 요한 '교육개혁'을 심도있고 치밀하게 단계
 별 준비작업을 거쳐 민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너무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 상의
 하달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주
 체적' 공감대 없이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낭

비를 초래하여 자칫 걸치레 잔치만 치르고
 공허한 결말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낡
 는다.

아무튼 교육계에 몰아치는 거센 회오리가
 어떤 식으로든 현장의 분위기에 일정한 변
 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을
 '개혁'하는 패러다임에서 생각할 것은 학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그것의 교수-
 학습 방법도 있다. 전자를 '굳은 모'(hard-
 ware)에 비유하면, 후자는 '부른 모'(soft-
 ware)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럴싸한 껍질이
 있어도 내용이 시원찮으면 실효가 없다. 요
 즘의 '개혁' 논의는 어떤 면에서 껍질 논쟁
 에만 매몰되는 느낌도 준다. 교육단위의 조
 건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

성있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설계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방법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무른 모'에 관해 환기해 보고자 한다.

다양하고 특성있는 교육목표와 내용 설계

요즘 교육개혁의 흐름에서는 어문계 교육 목표와 문과 학문 전체의 개혁 목표도 불투명하다. 영역 특성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학부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 복수전공제, 편입학제, 전과제 등의 단순한 실시 여부가 흑백의 선택대상으로 전락하여 학생 선발단위와 학생 분포만 관심사로 떠오르고 미래 지향적 교육구조 정립은 뒷전이다.

이러한 정황은 어떤 전공 영역에서든 바람직한 교육내용의 설계와 최적의 교수법 개발에 어려움을 준다. 학과제로 남든 학부제로 바뀌든 기존 구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분류법에 따른 '어문계' 또는 '인문계'의 교육을 논한다는 한계는 동어반복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어쩔 수 없이 '어문계'라는 틀에서 생각할 때 교육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향(定向)될 수 있다. 하나는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과학'과 '문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수-학습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며 학술 연구와 실생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와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를 중심으로 각 언어

권에 대한 실용적 요소를 교양으로 교수-학습하여 질 높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영위하며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세분하자면 크게 네 가지를 포괄하게 된다.

첫째로 일상생활과 학구생활을 포함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둘째로 언어문제에 대한 이론과 응용의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다.

셋째로 주어진 언어권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로 국학 또는 외국학적 지식을 폭넓게 쌓는 것이다.' 주어진 교육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교과목들을 요구한다.

- ① 언어 습득을 위한 기초과목
 - ② 문학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③ 언어과학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 각 언어권에 대한 지역학적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어문학 계열의 성립이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교과목 체계에서는 언어습득 과목들이 밑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언어 자체에 대한 학문인 언어과학을 중심으로 문학 등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어문학'이라는 틀을 지키는 전제에서 교과목 체계를 설계할 때는 당연히 앞의 범주들 사이에 ①>②>③의 순위로 구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요즘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육계 변화의 구도에서 아쉽게도 큰 관심사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

1) 엄격히 말하자면, 이 사항은 어문학 계열보다 '지역학' 계열에서 말아야 할 영역이지만, 아직 언어권별 지역학이 활성화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나라 학계의 역사로 볼 때 지역학의 실마리는 '어문학 계열의 특성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어문학 계열의 틀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다('大學教育', 통권 75호, 1995년 5·6월호에 실린 필자의 글 참조바람).

〈표〉 범주별 교과목 분류 모형

언어습득 과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회화, 작문, 문법, 발음연습, 시청각언어실습, 실용-실무언어, 통역연습, 번역연습
언어과학 과목	언어과학개론, 언어과학사, 언어사,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어휘론, 문체론, 기호학, 언어철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문예언어학, 인류언어학, 역사언어학, 인지언어학, 수리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교수법, 통역학, 번역학, 사전학
문 학 과 목	문학개론, 문학사, 문학이론사, 소설론, 희곡론, 시론, 산문론, 비평론, 작가론, 작품론, 문학주제론, 고전문학론, 현대문학론, 비교문학론, 창작연구, 번역문학론, 문학사회학, 문학심리학, 문학철학
* 지역연구과목	문화연구, 역사연구, 지리연구, 사회연구, 경제연구, 무역실무, 정치연구, 외교연구, 행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군사관계연구, 권역(block)연구, 국제관계연구

만, 앞으로 언젠가 맞아야 할 대학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각 범주의 선택 또는 범주간 배분 비율은 국가 차원에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²⁾ 원론적으로 각 범주에 들어갈 교과목을 정리해 보자면 대충 위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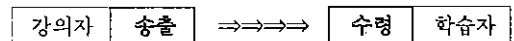
언어습득 과목들은 어떤 교육목표를 지향하든 어문학 영역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과목들이다. 나머지 범주들은 교육목표에 따라 초점을 달리할 수 있다. 각 범주 안에서 언어권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 맞는 교과목들을 탄력있게 편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범주들 사이의 학문적 또는 기능적 변별과 함께 한 범주 안에서 과목들 사이의 순차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문제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은 저학년 때 토대를 닦아야 고학년에서 순차적으로 난이도 높은 전문지식을 원어로 소화하는 데 능률이 오른다.

협동적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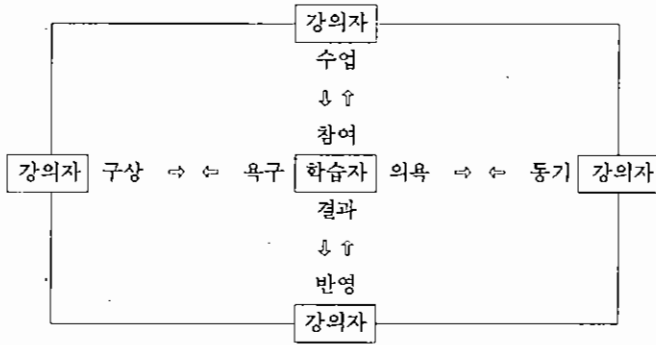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교육내용의 운용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사실 이 사항은 반드시 요즘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강조할 만큼 갑자기 대두된 새로운 사항은 아니다.³⁾ 그러나 과거에 적지 않은 경우 〈그림 1〉과 같이 강의자 중심의 일방적 지식전달 방법을 안일하게 원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강의자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교안화하여 강의에서 송출하고 학습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관 없이 강의내용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강의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관행화한 데는



〈그림 1〉 강의자 중심 학습 모형

- 2) 사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변화는 대학의 특성화나 다양화보다는 획일적 모형을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들어 매우 아쉽다.
- 3) 예나 지금이나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주체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수법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림 2〉 학습자 중심 모형

강의자 측의 안일함 못지 않게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학습자 측의 수동성도 원인을 제공했다. 뒤늦게 공과를 가리기보다 이제는 더 바람직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언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에서 언어 습득의 당사자가 학습자인 만큼 학습자 중심의 방법론은 당연한 요구이다. 여기서 '학습자 중심'이란 단순히 학습자의 즉흥적 요구나 편이에 따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창 자라는 어린이의 영양 공급 과정에서 부모의 정성 갖춘 식단 제공과 식사법을 소홀히 하고 어린이 자신의 편식 기호에 내맡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체질과 식성을 고려하는 것과 그의 순진하고 무분별한 기호식품 선호를 방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란 강의자의 지식전달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습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자를 위한 지적 능력 제고에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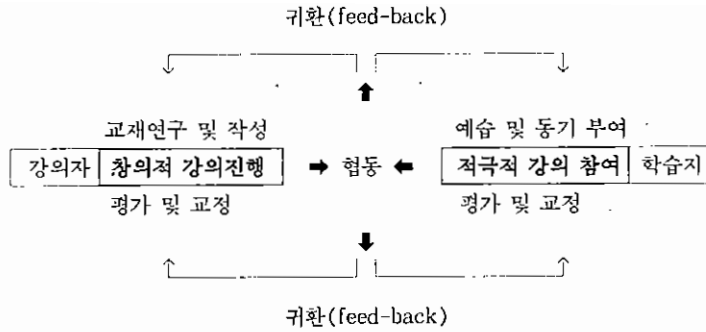
를 둔다는 뜻이다. 강의자는 자신의 언어 지식과 편이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그림 2〉와 같이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진의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학습자의 올바른 참여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마련해도 편식이나 유아적 식사법에 집착하면 동상이몽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강의자와 학습자는 뒤의 〈그림 3〉과 같이 협동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든 어문계 영역의 기초인 언어습득 과목의 학습에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어의 제1차 기능인 '의사소통'과 제2차 기능인 '표현'의 능력이다.⁴⁾ 모국어인 국어의 경우는 1차 기능으로서 의사소통의 문제는 대체로 해소된 만큼 2차 기능으로서 표현의 측면과 그 밖의 부차적 기능에 오히려 역점을 둘 수 있다. 외국어의 경우는 의사소통을 최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⁵⁾

4) 일반적으로 언어의 제1차 기능으로 '의사소통' 기능, 제2차 기능으로 '표현' 기능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밖의 여러 가지를 꼽는다. 언어의 기능적 맥락에 따라 각 기능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라도 '의사소통'의 기능을 떠나서 언어를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목적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사실 우리나라 언어교육에서는 이런 어긋남이 더 돋보이지만...).

5) 과거 언어교육에서 이 점이 적지 않게 소홀히 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를 점수 변별의 기호수단으로 삼기 일췌인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에서도 '읽기' 위주의 문법교육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3〉 학습자 중심의 협동 모형

의사소통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입체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표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쓰기의 능력을 최대한 제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조건과 교육환경에 따라 그리고 강의자의 치밀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의 제시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어교육이 지나치게 읽기에 치중하였으므로 입말에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글말에서 쓰기 교육에 각별히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문법 위주의 방법보다는 회화, 작문, 발표, 창작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회화와 작문 교육에는 시청각 수단, 컴퓨터 등의 첨단기기와 원어 사용자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미 회화에서 비디오, 음성교환기가 따위가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운용법과 시설의 수준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작문의 경우, 기존에는 책과 칠판을 이용해 대중강의식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지만 요즘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컴퓨터 통신 등 다중매체를 이용해 보다 과학적인 교수-학습법을 활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회화와 작문의 긴밀한 연계학습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입말과 글말의 지나친 격리현상을 완화하고, 회화훈련에 사용하는 시청각 기자재와 작문학습에 원용할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 방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그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어 사용자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다중매체(멀티미디어) 기술을 최대한 원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요소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방법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첨단교육을 지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단위당 학생수를 제한해야 한다. 현재 30명 이상의 전공언어 과목 강의도 많고, 교양 외국어는 100명이 넘는 과밀 강의조차 있다. 강연식 대중강의로 외국어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과목 성격에 따라 적정수를 조절하되 언어훈련 과목은 가급적 15명, 많아도 20명 이내로 엄격히

6) 컴퓨터의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이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곧 비약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에 언어학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할 만하다.

제한해야 한다. 물론 다중매체 시설이 입체적으로 갖춰질 경우는 체계의 기능에 따라 강의자와 학습자의 수가 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언어실습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장의 확충과 과학화가 필요하다. 언어는 입체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국가경쟁력 차원의 언어학습 전략은 시설 투자를 동반해야 한다. 대부분 강의를 책과 칠판과 분필로 진행하는 지금의 여건에서는 아무리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생명력 있는 언어 구사력을 성취할 수 없다.

언어과학 이론이나 문학의 학습은 의사소통이나 표현력 배양보다 지적 능력의 제고에 목표가 있다. 그런데 교수-학습의 주체들 사이에 지식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강의자에서 학습자로 전이하기 때문에 때로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초점이 흐려지기 쉽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은 강의자가 소유한 지식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식의 과소에 따른 무게의 중심과 학습주체의 중심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강의자는 지식의 송출자가 아니라 안내자로서 학습자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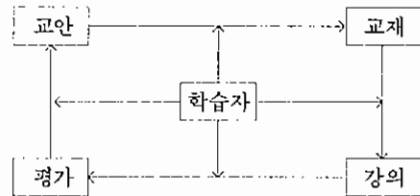
강의자가 흔히 자신의 소속 학과 이론에만 치중하거나 자신의 세부 전공의 틀 안에서만 모든 과목의 교수법을 규정하는 오류를 자주 겪는다. 예를 들어 구조주의 이론에 세례를 받은 강의자가 모든 강의에서 구조적 관점만 도입한다면 강의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강의자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정통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버리고 전혀 새로운 시각만 도입할 수는

없다.⁷⁾ 오히려 강의자가 지닌 이론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의내용을 도입한 뒤 자연스럽게 그 밖의 이론들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방식으로 교수-학습하느냐에 더 많이 좌우된다. 교안구상-교재선정-강의진행-강의평가의 전 과정에 <그림 4>와 같이 학습자의 조건이 늘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서 교수의 역할은 어느 경우도 배제될 수 없다. 교안 구상과 교재 선택은 학습자의 조건을 치밀하게 반영하여 강의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강의와 평가는 강의자와 학습자가 협동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강의평가는 학습자와 강의자의 쌍방평가와 협동평가가 적절히 종합되어 그 결과가 반드시 다음의 교안 구상에 반영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안 구상에서 고려할 변수는 대체로 영역 조건, 학습 수준, 학습자 기대, 학습 시간, 이론 조건, 강의자 조건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적지 않은 경우, 마지막의 강의자 조건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그림 4> 학습자 중심 교육의 조건 반영

7) 사실 아무리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원하고 새로운 언어관을 요구하더라도 복잡한 언어문제에 관해 그렇게 신속하게 늘 새로운 이론을 체계적으로 쉽게 개발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학습자의 기대와 수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될수록 재미있고 쉽게 강의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좋지만, 흥미 위주와 평이함이 곧 학습자의 기대와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⁸⁾

많은 경우 아직은 외국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언어과학 및 관련 분야의 실태로 볼 때, 교재의 작성이나 선택에서 외국의 경향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필요와 실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문계 교육이 안고 있는 큰 어려움의 하나이다. 특히 외국어문제에서는 외국어 학습과 전문교육을 연계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조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국이론과 외국어를 적절히 혼합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식 교재를 교수진의 총체적 협력으로 심도있고 수준 높게 많이 개발해 나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실정에 맞게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수업용 전자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의진행 방식은 강의자 설명식, 학습자 발표식, 강의자-학습자 대화식, 학습자간 토론식, 지도-보조식 따위를 적절히 조합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강의자 설명식 위주를 탈피하여 교수가 주도하는 시간과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 또는 보조원이 지도-조언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프로그램의 조직과 보조원의 활용이 물론 필요하다.⁹⁾ 또한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프

로그램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강의평가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강의적응도, 학습자 입장에서 본 강의내용과 진행의 장·단점 대차대조, 강의자 입장에서 본 제시내용과 학습자 집단의 참여도에 대한 대차대조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습자 평가의 경우, 공정성은 물론 평가내용과 방법의 종합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강의 또한 교수 평가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어온 바 있듯이 자칫 학생들의 '인기투표식' 평가로 흐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비교육적 변수가 끼여들어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평가는 결과를 객관화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생산적으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어과학의 경우, 현대 언어학의 '과학적' 특성 때문에 과목들간의 순차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 난해하고 '딱딱해'지기 쉬운 내용이 많아서 학생들의 관심과 성취감을 높이는 교수법의 개발과 활용이 절실하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처럼 음성학, 통사론 중심의 미시적 영역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시적 영역과 응용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호학, 인지과학, 통역학, 번역학 등의 실용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어과학의 각론 분야들 가운데 미시적

8) 가끔은 학습자를 위한다는 허울로 게으른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몰두하는 강의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학습자 중심'이 아니다. '아부'나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잣대는 '어린이 양육'의 원칙처럼 '학습자 발전'의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9) 전공별 조교진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교의 보수지급에 따른 재정확보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과도기에는 학부의 우수한 고학년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 가운데 자원자를 확보하며, 특별시간강사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영역에는 첨단시설과 언어학 전공 외국인의 활용이 필요하다. 음성학 및 음운론의 과학적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음성-음운 실험실과 제반 기기가 마련돼야 하고, 외국어문제 열에서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의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언어이론에 정통한 외국인 강이자 또는 보조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시적 영역에서는 학제간의 긴밀한 교류와 연대가 요구된다.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언어철학, 인류언어학, 인지언어학 등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철학, 인류학, 인지과학 등 인접분야와 긴밀한 접촉이 필수적이다.

문학의 경우, 고전적 분류법에 따라 나뉜 장르별, 시대별 과목에서 기존의 작품이나 작가를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작이나 번역문학 또는 비교문학의 내용을 적극 도입하여 학습자의 참여공간과 후속적 활용의 장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개혁적’ 교육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전제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조건들이 전제된다. 가장 선급한 조건은 환경조성이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첫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에 적용할 전자교재의 개발과 통신망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언어습득 과목의 경우 벌써 전자교재와 통신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진척과정에 있지만, 그것을 실험하고 적용해 볼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하다. 첨단교재 개발자에게는 응분의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적 출혈을 줄이고, 개발되었거나 시험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을 현장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전자통신 학습장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수의 질 높은 연구와 강의 준비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책임강의 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내실 있는 연구년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문 계열 교수들의 현직왕래를 통한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5년 주기로 1년간의 현지연수와 2~3년 주기로 1~2개월 정도의 방학연수를 정례화하고, 수시 연구출장을 통해 꾸준하게 현지교류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¹⁰⁾ 또한 외국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있거나 교수의 개인적 프로그램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 연구계획이 있을 때에는 학사일정이나 지원 프로그램 일정에 구애 없이 즉각 해외에 파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교원 자질 향상, 정보 수준 제고, 첨단교수법 적응과 수준 높은 교수내용 개발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학생 해외 언어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현장실습과 산 언어 체험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외국어문제 학생들의 현지연수는 요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해외 나들이를 흡수하여 학구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매

10) 연구성과와 생산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초리’도 필요하겠지만, ‘꿀엿’을 많이 부여할 때 주체적 동기를 일으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요즘의 이른바 ‘개혁’은 때로 그 방향과 목표도 뚜렷하지 못할 때가 많은 뿐더러 방법론이 지나치게 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개혁은 ‘개혁적’ 투자방안과 함께 교육주체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고차적 방법론을 곁들여야 한다.

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국가와 대학 그리고 관련 학회 및 해당학과 교수진의 입체적 공조체제로 현지 대학들과 협력하여 여름이나 겨울의 방학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의 언어 연수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렴한 항공료 제공, 연수비용의 용자와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국들과 상호교환으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외국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 산업현장 견학, 유적지 방문, 교양강좌, 희망자에 대한 우리말 연수 등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홍보, 외국어 학습 능력 배양, 학술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국어문-외국어문학 그리고 외국어 문학 간의 상호보완적-교차적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말을 단지 국내용만이 아니라 해외 보급 및 홍보의 용도로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문학을 외

국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리고 또 상호교차적으로 비교하는 학술활동도 시급하다. 교육내용이나 교수-학습법 등에서 서로 교류-협동해야 함은 물론 연구체계 자체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어문학 계열 내의 교차적 교수-학습을 추진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2개어 사전 편찬, 다국어 통역기기 개발, 번역, 통역, 비교연구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영역간 입체적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부제 등 외형상의 영역 통합보다 실질적인 학제 융합을 이룩해야 한다. ■

주경복/파리 5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한국외대·중앙대·서울대 등의 강사를 거쳐 현재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프랑스 말·글짓기』 등이 있고, “거시적 언어과학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개념의 인식과 문제론—소쉬르, 레비 스트로스, 라캉, 알튀세르 이론에 교차하는 인식론적 흐름을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